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 섬기는 생활
- 주는 생활
-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6 겨울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참석을 독려하고, 기도로 지원해야

겨울방학기간을 통하여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하는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가 계속된다. 지난 달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어 대학부가 오는 21일(목)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갖는 한편 2월 29일(목)부터 3월 2일(토) 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의 겨울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가 부서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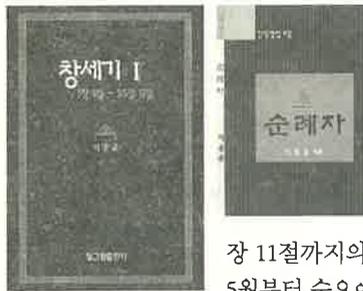
계절학교는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교사들은 주일에 미처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효과적인 계절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계절학교 기간은 학부모들도 교회학교 교육에 평소보다 관심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된다. 이번 기간이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

는 천국시민으로서의 이상을 새로이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동시에 주변에 아직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교회학교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겠다.

부서	주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구원의 길	2월 29일(목) 오전 9시 - 오후 2시	별관 유치부실	홍영록 선생
유년부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가 되자	2월 29일(목) ~ 3월 1일(금) 오전 9시 -	3층 유년부실	이순환 목사
초등부	예수님을 본받는 어린이	2월 29일(목) ~ 3월 1일(금) 오전 9시 -	4층 초등부실	박종상 교역사
사랑부	뛰면서 찬양하리	3월 1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별관 사랑부실	임진태 목사
대학부	비전있는 대학청년이 되자	2월 22일(목) - 24일(토), 2박 3일간	양수리수양관	이종윤 목사, 원호 목사
청년부	예수 사랑 · 예수 바람	2월 29일(목) - 3월 2일(토), 2박 3일간	사랑의 집	이만열 전도사



창세기 강해(I), 순례자 컬럼집 출간

- 이종윤 목사 지음, 필그림출판사 펴냄 -

필그림출판사에서 이종윤 목사의 『창세기 강해(I)』과 컬럼집 『순례자』를 발간했다.

『창세기 강해(I)』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의 강해를 수록한 것으로 이종윤 목사가 1993년 5월부터 수요예배시간을 통해 한 설교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 전제하고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강해식 방법론으로 기술한 이 책에서 세상과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타락, 형벌과 구원, 민족의 생성과 나뉘, 족장들의 신앙순례를 통한 천로역정기까지를 찾을 수 있다. (양장 480쪽 / 10,000원)

매 주일 동아일보에 게재한 컬럼을 모은 컬럼집 『순례자』에는 함축적 표현으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앙적 시각에서의 이해와 해석을 담았다. (180쪽 / 4,000원)

이 책들은 '생명의 말씀사'에 총판을 의뢰하여 전국 기독교서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2층의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학회,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오늘 마감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회장:김대호 장로)에서는 1996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회는 오늘 신청 접수가 마감하는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는 교회 내의 학생과 지역사회 극빈자 가정의 학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오는 25일(주일) 찬양예배시에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주간성경공부 답안지

교구와 다락방 이름 반드시 써야

일년 일독을 위한 주간성경공부가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교회는 채점된 답안지를 본인이 직접 찾아 갈 수 있도록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새로운 합을 마련하였다. 이 합은 교구별, 다락방별로 구획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할 때 교구와 다락방명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답안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간성경공부는 오늘로서 6주째가 되었지만 아직 동참하지 못한 성도는 오늘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다가 중지한 성도들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제지의 목적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문제지는 교역자실에 가면 구할 수 있다.



한국교회 성장 둔화 - 그 원인과 대책

이종운 목사

■...이 글은 지난 9일에 가진 한국로잔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종운 목사가 발표한 논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교회 성장을 수적인 측면에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성장 현황

194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단위로 살펴본 한국교회(개신교) 신자의 인구대비 비율은 제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통계가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한국교회가 계속 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표1. 10년마다의 한국교회 신자의 인구대비 비율

연도	신자수	인구비율(%)
1940	372,000	1.5
1950	600,000	2.9
1960	1257,428	5.0
1970	2197,336	7.0
1975	4019,313	19.1
1980	7180,627	23.75
1990	10312,813	

50년대에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60년부터 70년 사이엔 75%, 70년부터 80년 사이엔 3배가 넘는 326%나 증가한다. 그러나 80년도부터 90년 사이엔 46%로 70년대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성장의 그래프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장로교, 감리교를 그리고 소위 급성장을 했다는 오순절과 교회를 포함한 6개 교단들의 지난 3년간의 성장 통계표를 분석해보자.

교단	교인수			*(1인은 0.01%)
	연도	'93	'94	
예장(통합)		2,049,117 (2.9%)	2,101,295 (2.4%)	2,103,295 (0.01%)
예장(합동)		2,147,642	2,158,794 (0.5%)	2,158,908 (0.005%)
감리교		1,289,242	1,289,626 (0.003%)	1,294,330 (0.07%)
기장		328,048	330,580 (0.99%)	334,473 (0.99%)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1,214,798	1,266,568 (0.4%)
예장(고신)		349,208	363,620 (1.96%)	

▲표2. 주요 교단별 성장 통계표('93 - '95)

이상의 도표에서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 ① 지난 3년간 1% 이상 성장한 교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
 - ②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교회일수록 성장 둔화 현상이 더 컸다는 것.
 - ③ 부끄럽게도 통계 자료를 만들지 못했거나, 보고된 자료조차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예컨대 ○○교단 총회 보고서의 노회별 보고와 그것을 합산한 숫자가 다르며, 심지어 백분율 계산이 틀린 것 등은 한국교회 성장 연구에 커다란 혼란을 주었다)
- 1983년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수는 5,337,308명이다. 이것은 당시 인구의 13.45%에 해당된다. 이때부터 실제로 한국교회 성장은 둔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는 800만에 육박하는 숫자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인구 조사서에 의한 개신교 신자수와 교

회의 통계는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2. 한국교회 성장 둔화 원인

- ① GNP 개인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 번영을 구가하면서 레저 문화가 발전함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경원시 하게 된 점.
- ② 전후 서구화의 영향권에 치우쳤던 국민정서가 민족의 뿌리찾기· 전통문화에의 향수와 같은 시대 조류에 밀려감에 따라, 서양 종교로 오해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의 점차 적어진 점.
- ③ 사회불안·정치적 혼란기에 교회의 역할은 현저했지만 사회구조가 다원화된 지금 교회 사역은 매우 초라해 보이고 있다는 점.
- ④ 토착화된 신학·민중신학·이단종파운동 확산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내적으로 도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 ⑤ 종교다원화·혼합종교운동이 교회 일각에서 (신학적 오류로 그리고 정부 또는 사회 언론의 요구로) 진행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상대화되고 기독교 뿌리가 흔들리게 된 점.
- ⑥ 복음의 핵심보다 현세적 가치·축복과 성공을 강조하였으나 어느 정도 부를 누리게 된 지금 기복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던 교회의 메시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점.
- ⑦ 비교적 보수 신앙을 강조하던 교단들의 핵분열 현상이 가중되면서 교세 확장을 위한 교역자의 양산이 한시적인 교회 성장에는 일익을 감당했는지 모르나 그로 인한 막대한 대가를 교회는 오래동안 갚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점.
- ⑧ 목회자와 교회 지도급 인사들의 윤리성 결여로 사회적 신뢰성이 실추되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마다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고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짐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점.
- ⑨ 지나친 교단 분열과 분쟁으로 내적으로는 힘이 분산되고 외적으로는 추태(?)를 보임으로 전도전략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온 점.
- ⑩ 무신론, 인본주의, 과학주의, 물질만능주의 등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불면서 영원, 구원, 부활과 같은 피안의 세계 문제는 점차 도외시되고 세속적 유명세나 부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변질된 교회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기성 신자조차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
- ⑪ 교회가 사회적 제 분야에 예인자적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밖에 버려진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점: 인신매매, 사치, 유흥업소 번창, (북한)인권문제, 잘못된 관행, 환경문제, 핵문제, 자연고갈문제, 낙태문제, 탈세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에 관하여 침묵 내지는 무대응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 확대(가짜 박사학위 취득, 교인 수 불리기, 사치스러운 교회건축 등)에 경쟁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교파와 교권을 확장시킴으로 더 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 ⑫ 유아출생율은 급격히 떨어지므로 생물학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성장 신학의 도입과 함께 내실있는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므로 지속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신학 지식의 빈곤으로 허약하고 병든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

3.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것들

우리는 여기서 주저 않을 수만은 없다. 한국교회의 지속적 성장과 발



▲ 9일(금) 우리교회당에서 열린 한국로잔위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을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① 목회 방향을 양적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에로 전환 해야 한다.
- ② 잃어버린 자, 소외계층에 속한 자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풍선처럼 높아지고 커지지만 하려는 교회에 말씀의 겹을 찢어 바람을 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닮도록 해야 한다.
- ③ 집단 이기주의적 교권주의·교파주의가 하루 속히 청산되고 개혁주의 정신(오직 말씀·오직 은혜·오직 믿음·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회복해야 한다.
- ④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성경적 요소는 낱알이 제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 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영적 프로그램과 평신도 신학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갈 기독교인을 배출해야 한다.
- ⑥ 성경적 교회관이 확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학 교육기관이 재정비되고 성직자 배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⑦ 바른 신학·바른 신앙·바른 생활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론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학과 가치관 정립이 시급하다.

- ⑧ 교회 일치(연합)를 이루어 실질적으로 민족복음화의 기틀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 ⑨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진리 안에서 체현하는 교회 모습을 갖도록 해야 한다.
- ⑩ 평신도 의식(교회 내에서의 기득권, 소유권, 계급의식 등)을 개혁하여 복음적 삶을 실현케 하며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함양되게 하는 사회 구현에 모범을 보여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⑪ 하나님의 목회(God's Ministry)를 통해 인본주의적이고 탈기독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도와 말씀의 두 수레바퀴를 굴러 세계교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역사적식을 가져야 한다.
- ⑫ 개교회나 교단의 신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해지도록 해야 하며 한국교회는 그 나라의 왕권을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⑬ 이 시대는 좋은 설교보다 좋은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 말보다 삶과 행동으로 말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의 인격이 투사된 성도가 있는 교회를 이루도록 한다.

결론

한국교회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목회자와 열심있고 헌신적인 신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민족과 나라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은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심은 이 시대를 위해 쓰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결코 성장을 멈출 수 없고 멈추어서도 안된다.

우리 동양인들은 위기(危機)란 위험(crisis)과 기회(chance)의 복합어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 지금이 한국 교회가 제 2의 도약을 할 시기다. 구겨지고 때묻은 겹질은 훌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순례길에 만난 사람

**동아일보사 신우회 회장
김종운 집사**

.....
동아일보사의 기독교신우회장이 된 김종운 집사. "1992년 봄 저희 신우회에 오셨던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저희 가족 모두가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어준 신우회에 대해 말을 이었다.

동아일보사의 신우회는 사내 몇몇 믿음의 형제들이 신우회 창립에 뜻을 두고 기도하던 중 1989년 12월 18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회원들은 매 월 둘째 주 화요일 정오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실로암안과(원장: 김선태 목사)에 개인수술비를,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그리고 극동방송에 헌금을 통해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인사기록부를 일일이 검토하여 믿는 형제들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 왔습니



▲8년 전, 외가집에서 찍은 김 집사의 가족 사진. 그 후에 두 자녀(극영과 미영)가 해외로 유학을 떠나 온 가족이 모여 찍은 것으로는 1988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다." 창립할 때 30명이었던 회원이 9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 비결을 설명하는 김 집사는 "신우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앞으로의 2년 임기동안 그간의 활동을 더욱 내실을 기할 뿐 아니라 타언론사 신우회와의 교류 및 연합활동에도 힘을 쏟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

혔다.

의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이종운 집사와의 사이에 1남 2녀(극영, 선영, 미영)를 둔 김 집사는 이사한 날부터 집요하게 권하는 이웃을 따라 예의상(?) 교회에 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교회에 받을 들어 놓은 첫날, 이상하게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1984년의 어느날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는듯 눈시울이 붉히는 김 집사는 "이웃에게 전도하고,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하게 권유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 인도한 그분들의 열심을 생각하며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하려합니다"라고 말했다.

성경을 좀더 깊이있게 공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한 교회 학교 교사생활이 어언 10년째. "제가 서울교회에 처음 와서 가르쳤던 중학생이 이젠 대학생이 되어서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하며 흐뭇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김종운 집사는 현재 고등부 교사로, 임미누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101교회와의 결연확정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100교회 운동'이 2월 9일 현재 101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

올해의 100교회운동에는 남선교회가 12교회, 여전도회가 24교회, 다락방이 10교회, 찬양대가 2교회, 당회소속기관 중에서 2교회, 교회학교가 1교회, 개인 혹은 가정이 50교회와 결연하여 후원하기로 하였다.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후원자들이 셋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후원금을 송금하는 일

을 잘 기억하고 협조해 줄 것과 방문이나 전화 통화 등 후원교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추가 및 정정

1996년 2월 9일 현재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01	전남	옥산	서달운(목)	송두심
9	경안	송일	김기식(목)	이영자
17	경동	송천	박규삼(목)	요한 4, 에스더 3
36	목포	시온	임대준(전)	김중복

여전도회 헌신예배

지난주일 찬양예배 시에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인도와 기도, 성경봉독도 여전도회 임원과 간사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여성도가 단 위에 서기도 했다. 우리 교회에는 연령별, 지회별로 구분된 20개 전도회가 있어 여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회를 통해 전도와 구제,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여성도는 한나 전도회, 50세 ~ 59세 여성도는 에스더 전도회, 40 ~ 49세 여성도는 루디아 전도회, 39세 이하의 여성도는 마리아 여전도회에 각각 가입할 수 있다.



▲ 20개 여전도회 회장들의 특수
◀ 한나여전도회원들의 성경암송



전도회(연령별 구분) ▶

전도회	해당연령
한나	60세 이상
에스더	50세 ~ 59세
루디아	40세 ~ 49세
마리아	39세 이하

■ 김동무
전도지를 이용한 미려한(?) 방법으로



○...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챙겨야 할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매 주 발간되는 『순례자』요, 또 하나는 전도지이다. 매 주 받아드는 한 장의 전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을 체질화하기 위한 매개물이 될 것이다. 버리거나 묵하지 않는 한 그 주간엔 전도지를 전해줄 사람을 찾게 될 것이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은 전도지를 활용할 때까지 쫓아다니게 될 것이며, 전파한 후에 버린 바되지 않도록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도전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다(고전2:21). 부득불 해야 할 전도 -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한 장의 전도지'를 잘 활용해 보자.

다락방 소개 여행연습

○... 올해 들어 주일 찬양예배시간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장식되고 있다. 특별히 다락방 소개 시간이 신설되어 각 다락방의 독특한 사정을 알게도 되고, "이 집사와 김집사가 부부였잖아", "저 형제와 이 자매가 남매였네", "○○가 저집 아들이었구먼" 하는 새로운 발견들로 기쁨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예배시간이 다소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까를 우려한 어느 다락방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소개와 동시에 알차고 의미있게 주일저녁을 장식하기 위해 리허설까지 한다고. 다락방 소개의 회수가 더해 갈수록 참신해지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목회자 · 교우 동정 ■

- * 최병호 목사(3·4교구, 유년부 지도)는 2월 10일자로 본교회 부목사직을 사임했다. 최 목사는 수원 소재 소망아카데미 간사로 부임한다.
- * 홍순일 집사(8교구, 상계 다락방)는 8일(목)에 '도회패션'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I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와 겨울수련회를 통해 거듭난 인간 · 성숙한 신자 ·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들이 될 수 있도록
2.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